



독극물이 함유된 술 이야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임 현 술

보건복지부는 2016년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10가지 암 예방수칙을 10년 만에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음주 수칙은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 있었다. 음주는 1군 발암 요인으로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직장·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국제암연구소(IARC)는 보고하였다. 또한 소량의 음주(하루 1~2잔)로도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면서 소량 음주도 피하라고 변경된 것이다. 이제 음주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하더라도 2잔 이내로 어찌다 마셔야 할 것이다.

음주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분을 고양시켜 즐겁게 해주는 음료이며, 사람들 간에 서로 친밀하게 다가가 수 있는 사회적 기능도 한다. 먼 옛날부터 한 해의 풍성한 수확과 복을 기원하며, 맑은 곡주를 빚어 조상께 먼저 바치고 춤과 노래와 술 마시기를 즐기는 등 각 국가마다 음주는 문화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는 암 발생을 비롯하여 간장 장애(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 등) 및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를 포함한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뇌의 정보 수집 및 통합 기능을 혼란시키며, 장기간 술을 과다하게 마실 경우 알코올 중독 증으로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며, 동시에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물질적 피해를 입힌다.

음주 자체가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술 자체에 독극물이 포함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합법적으로 제조된 술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방영된 악마의 유혹 압생트 편에 의하면, 압생트(absinthe)는 18세기 후반 프랑스 출신의 의사가 편백나무와 향썩 등을 증류하여 만든 치료용 약물이었다. 주류업체에서 이 처방전을 이용하여 알코올 도수 70~80%의 독한 술을 제조하였다. 원료인 향썩은 어디에서나 잘 자라서 저렴하게 제조되어 프랑스의 국민주가 되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예술가들 사이에서 환각상태를 즐기면서 창조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인기가 있었다.

1905년 8월 농부가 아내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달려온 딸마저 쏘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의학자가 압생트를 마시고 환각에 의하여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국민주를 마시고 살인사건을 일으켰다니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이 진행하였다. 토끼의 정맥에 압산유를 주사하니 의식장애와 간질 경련이 일어났다. 장기간 주사하자



중추신경계에 영구적인 장애가 초래되어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압생트를 상습적으로 마심으로써 생기는 중독을 압시틴중독증(absinthism)이라고 하며, 멍청한 상태, 정신력 저하, 신경과민, 안신경염 또는 환각 경험 등이 나타난다. 프랑스의 시인 알프레드 뮈세와 화가인 로트렉과 빈센트 반고흐 등이 압생트의 중독으로 인한 간질 발작으로 목숨을 잃거나 자살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는 압생트가 흉악 범죄의 최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정치인들도 이를 경고하면서 네덜란드,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프랑스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판매가 금지되었다. 유럽 근대 예술가들의 생명수로 군림하여 마법의 술로 통했던 압생트, 환각과 도취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미술과 자연주의, 상징주의 문학을 낳게 한 원천수라는 평가와 함께 한 시대를 검게 물들인 악마의 유혹이며, 치명적인 술로 극과 극을 달하는 평가를 받았다.

40년이 지난 후 유해한 성분과 중독을 부르는 향취를 제거하고 알코올 도수를 40%로 낮추고 재출시하여 다시 세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는 죽음의 비밀 클로로포름이 방영되었다. 미국에서 1920년 1월부터 금주법이 시작되어 0.5%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의 생산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반발이 심했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거의 없었다. 금주법이 시행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 불법인 술집이 늘어만 갔다. 1926년 크리스마스 때 한 남자가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지만 바로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질식사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경우가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일개 병원인 벨뷰 병원에서만 23명에 이르렀다. 이에 의사는 이상하게 생각했고, 언론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지만 특별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1933년 13년 만에 금주법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져갔다.

그런데 2010년, 벨뷰 병원 사건이 술 때문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술에 포함된 독극물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미국 저널리스트 데보라 블럼은 자신의 저서 '독살범의 안내서'를 통해 벨뷰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계획 하에 독극물이 포함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1926년 금주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되어도 음주가 줄어들지 않자 큰 고민에 빠진 미국 정부는 술에 무언가를 넣어 며칠 아프게 하면 겁을 먹고, 자연스럽게 술 섭취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여 술에 독극물을 첨가하였다는 것이었다. 밀주업자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이들이 술 안에 클로로포름을 비롯한 아세톤, 벤젠, 에테르, 니코틴 등 10여 종류의 독성 물질을 섞었다고 한다. 결국, 독극물이 포함된 술이 뉴욕의 술집에 유통됐고 1926년 크리스마스에 술을 마신 23명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에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 소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술로 인한 독극물 사망 사건이 지속되어 그 후 1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하였다. 벨뷰 병원의 찰스 노리스 의사는 사망자의 몸에 독극



물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정부에 의해 묵살됐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금주법 당시 독극물을 넣었던 사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금주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금주법이 시행되고 음주가 더욱 늘어났으니. 금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니 어쩔 수 없는가?

술은 주로 에탄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에탄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알코올 도수를 빨리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메탄올로 술을 제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싼 술값을 감당 못 하는 빈곤층이 이런 밀주를 마시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

1951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메탄올이 함유된 밀수 위스키를 마신 323명이 집단적으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하여 41명이 사망하였다. 마신 위스키에서 35~40%의 메탄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라도 1998년 러시아 선원 3명이 흰 병에 담겨진 액체를 소주잔에 나누어 마신 후 메탄올 중독증이 발생한 사례를 경험하였다. 2014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 마을에서 술값이 인상되자 밀주를 마시고 메탄올에 중독되어 숨진 주민이 최소 14명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에서 차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이 마을에 중국산 밀주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 인도의 최대 상업 도시 뭄바이 빈민가에서 메탄올이 든 밀주를 마시고 84명이 사망하였다. 뭄바이에서 2004년 밀주를 마시고 104명이 숨진 후 10여 년 만에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이다. 이와 같이 옛날부터 현재까지 알코올 대신 메탄올로 제조된 밀주를 먹고 메탄올 중독이 되거나 사망한 사건은 많이 발생하였다.

메탄올은 강한 독성을 갖고 있어 마시거나 흡입 또는 피부로 흡수되어 증상이 나타난다. 메탄올로 제조된 술을 마시고 사망하게 되면 그 원인을 파악하기 쉽다. 적은 농도의 메탄올이 포함된 술을 장기간 먹고 사망한다면 메탄올 중독이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장기간 메탄올이 포함된 술을 마시고 시력 장애를 일으켜 장님이 된다면 이를 알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메탄올 또는 메탄올을 섞어 만든 소독약이 병·의원에 유통된 적이 있다.

2012년 차량 유리 세정액(워셔액)을 술로 오인하고 마신 후 메탄올 중독이 된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워셔액에는 메탄올 성분이 25~50%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초 근로자들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를 흡입하고 시력 손상 등 중독된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메탄올 중독이 되어도 제대로 진단을 받을 수 없다면 더욱 문제가 된다. 에탄올 대신 메탄올이 폭넓게 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급성 및 만성 메탄올 중독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술!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는 술

폭주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절대



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 한두 잔 소량 음주도 하지 말라고 한다.

완전히 술을 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능할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삭막해질까? 🍷

참고 문헌

1. MBC<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제작팀. 서프라이즈-사건편, 압생트, 악마의 유혹, MBC C&I, 315-319, 2016.
2. 김덕수, 임현술, 박성진. 러시아 선원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증. 동국논집 2000;19:381-391.
3. 한규홍, 이지한, 하민석, 황정인, 민진홍, 박정수, 김훈, 이석우, 도현수. 술로 오인된 처방 유리 세정액 음독으로 인한 메탄올 집단 중독. 대한응급의학회지 2012;23(5):762-768.